

‘꽉’ 막힌 농구협

대표팀 김상식 감독 유력 불구
절차상 모집 공고…시간 낭비



김상식 감독

올해 8월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이 16일 진행됐다. 한국은 B조에서 아르헨티나, 러시아, 나이지리아와 경쟁한다. 아르헨티나는 FIBA랭킹 5위로 남미 국가 중 가장 높다. 러시아는 FIBA랭킹 10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이다. 나이지리아(33위)는 한국(32위)보다 랭킹이 한 단계 아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독보적인 1위 팀이다. 쉽게 말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없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한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1승이다. 그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농구협회 차원의 월드컵 본선 준비는 일단 스톱됐다. 현재는 남자농구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 감독을 공개 모집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월드컵 예선에서 팀을 이끌며 본선 티켓을 따낸 김상식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농구협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워 차기 감독 모집 공고를 냈다. 농구협회는 이달 안으로 감독 선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농구협회가 원하는 기존의 감독과 재계약을 논의하면 될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공고를 진행하느라 시간만 보내고 있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엄청난 호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 하지만 대표팀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국내 팬들의 관심도와 직결되는 게 한국스포츠의 현실이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음에도 본선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농구협회의 행적력이 아쉽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김영수 프로당구협 초대 총재 내정



김영수 내정자

프로당구협회(PBA)는 18일 “6월 프로당구투어 개막을 앞두고 초대 총재로 김영수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77)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총재는 제33대 문화체육부 장관, 제4·5대 프로농구연맹(KBL) 총재,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등 문화체육 분야의 여러 단체를 이끌었다. 김영수 총재 내정자는 “전 세계 당구산업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글로벌 프로당구 투어 출범을 이끌게 돼 매우 기쁘다”며 “‘당구한류’를 목표로 프로당구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KT, 5시즌 만에 PO 진출 확정

다시 찾아온 ‘KT의 봄’ 서동철 리더십 빛났다

트레이드 실패·부상 악재 극복 성과
서 감독 “선수들 하나로 뭉친 덕분”
오리온과 시즌 최종전서 순위 확정



‘2018~2019 SKT 5G X 프로농구’는 정규리그 종료까지 팀 당 1경기씩만을 남겨놓고 있다. 플레이오프(PO)에 진출할 6개 팀(현대모비스, 전자랜드, LG, KT, KCC, 오리온)은 이미 정해졌다.

이중 6강 진입이 가장 만가운 팀은 부산 KT다. KT는 53경기에서 27승26패로 전주 KCC(27승26패)와 함께 공동4위를 기록 중이다. 19일 고양 오리온과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확정된다.

KT의 PO 진출은 2013~2014시즌 이후 무려 5시즌 만이다. 6강에 오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서동철 감독(53) 체제로 새 출발에 나선 KT는 시즌 초반에는 마커스 랜드리(34·197cm)를 중심으로 한 2대2 플레이와 공간을 활용하는 ‘스페이싱 농구’로 상위권

을 형성했다. 여기에 대체선수로 영입한 ‘테크니션’ 데이빗 로건(37·182cm)이 리그 적응력을 높이면서 그 위력을 더했다. 2라운드까지 선두 현대모비스의 바로 밑에는 KT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그러나 시즌 중반 안양 KGC와의 트레이드는 오히려 팀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고, 게다가 로건, 허훈(24), 김윤태(29), 김민욱(30) 등이 줄 부상을 당했다. 여기에 대체 외국인선수(스테판 무디)까지 데뷔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에 홀로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아온 랜드리, 양홍석(21)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지쳐만 갔다. 서 감독은 “곧 무너질 것 같은데도 선수들이 어떻게든 버텼다. 선수들이 하나로 뭉친 덕분에 수차례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KT는 19일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4위를 확정짓는다. 같은 날 전자랜드를 만나는 KCC가 승리할 경우, 성적에서 동률을 이루지만 올 시즌 맞대결 전적에서 KCC에게 5승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4위를 차지하게 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우여곡절 끝 봄 농구!’ 18일까지 53경기에서 27승26패를 기록한 부산 KT는 남은 1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6강 진출을 확정했다. 2013~2014시즌 이후 무려 5시즌만이다. 연이은 부상 이탈에 트레이드 실패 등 각종 악재를 딛고 만든 결과라 더욱 값있다. KT를 이끄는 서동철 감독의 리더십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현대캐피탈 ‘흥’ 담당 이원중 “난 신인이니깐요”



현대캐피탈 새내기 센터 이원중(24)은 신예답게 씩씩하다. 특유의 ‘흥’과 과감한 경기 운영으로 코트 위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그의 경쟁력이다.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중이다. 자신의 첫 봄 배구에서도 긴장은 잠시 뿐이었다. 이원중은 16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와의 플레이오프(PO) 1차전서 크리스티안 파다르~문성민~전광인으로 이뤄진 삼각편대의 공격력을 잘 살렸다. 1,2세트 교체 출전으로 시작했지만, 3~5세트엔 스타팅 멤버에 포함될 만큼 분위기를 주도했다. 세트스코어 3-2 승리로 현대캐피탈이 챔피언결정전으로 향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에는 이원중의 배짱 있는 토스가 한 몫 제대로 했다.

스스로도 기억에 남는 장면을 여럿 만들었다. 특히 여는 공격수들과 비교해 높이가 낮은 까닭에 전위 블로킹 상황에선 상대편의 집중 공략을 당하곤 하는데, 이날은 유효 블로킹 4개에 블로킹 1개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영리한 서브 에이스 1개도 겸했다. 이원중은 18일 “‘이제 봄 배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이 많이 됐다”면서도 “가운데 파이프 토스와 블로킹이 기억에 남는다. 송병일 코치님과 블로킹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 유효도 많았고, 블로킹 1개도 잡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원중

고 미소 지었다.

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평소 잘 웃는 팬이기도 하지만 파이팅을 주도해야하는 막내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도 함께 녹아있다. 이원중은 “교체되어 코트를 밟다보니 늘 분위기를 먼저 띄우자는 생각을 한다. 워낙 잘 웃는 편이다. 막내답게 파이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들도 귀엽게 봐주는 것 같다”며 웃었다.

베테랑들과도 스스럼없이 의견을 주고받는다. 경기 도중에 공의 길이나 공격 패턴 등에 대해 상의하며 손발을 맞추는 식이다. 형들도 먼저 나서 상대 팀의

블로킹 상황을 알려주며 이원중의 경기 운영을 돕는다. 개인적으로는 초호화 공격진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도 즐기려 한다. 이원중은 “코트 안과 밖의 모든 형들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패려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많아 편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다”며 “상황마다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즐겁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데뷔 시즌을 치르는 이원중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둔 문장이 하나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고민하지 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는 글귀다. 이원중은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해보자.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배구를 하고 있다”며 “신인이라는 것이 내 무기다. 이를 활용해 형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망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연고지 협약 앞둔 한국전력 ‘정치권 눈치’

V리그 레이더

요즘 봄 배구에 팬들의 눈길이 쏠리는 뒤로 더 중요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전력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 얘기다. 12시즌 동안 수원시와 함께 해온 한국전력은 2018~2019시즌을 끝으로 3년간의 연고지 협약이 끝났다. 수원시는 새로운 협약을 맺으려고 한다. 정식으로 의향서도 제출했다. 이런 와중에 광주지역의 정치인과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연고지 이전을 요구하는 다양한 압박이 한국전력에 밀어닥치고 있다.

●연고지 이전 요구는 정당한가

몇해 전부터 잊을만하면 나오던 연고지 이전요구는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니다.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기업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 스포츠 팀도 우리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한국전력과 V리그는 이런 주장을 무시해왔지만 최근 정치권을 매개삼아 전방위로 몰려드는 압력은 도가 지나쳤다. 가족이나 외풍에 약한 공기업

의 경영진에게 협박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전을 강요한다. 지역 팬들의 열망을 담아 연고지 이전을 요구하고 이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강요와 압력은 다른 문제다. 아직 광주시에서는 공식 의향서도 한국배구연맹(KOVO)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연고지 이전은 KOVO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온 행동을 보면 이사회의 반응이 좋을 수도 없다. 이번 연고지 이전 요구는 광주지역의 몇몇 배구인이 앞장서고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넣는 모양새다.

●연고지는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

연고지는 프로스포츠 비즈니스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게다가 이미 터를 잡은 곳에서 잘 해왔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옮길 이유도 없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전력에게는 오래 인연을 맺어온 수원시와의 협의가 먼저다. 한국전력이 수원에 터를 잡은 과거를 잘 기억해보라. 2005년 V리그 출범 때

아마추어 초창기단으로 시작한 한국전력은 현대건설과 함께 창원에서 V리그를 시작했다. 현대건설과 현대건설은 2005~2006시즌 뒤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겼다. 이 과정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김혁규 초대 총재의 정치적 연고지에 터를 잡았지만 너무 불편했다. 훈련장과 홈구장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사실상 시즌 내내 원정경기를 했다. 상대팀들도 이동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관중도 매스컴도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방경기를 외면했다.

정말로 광주에서 프로배구를 하고 싶다면 좋은 인프라를 제공해 한국전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면 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홈구장으로 쓰라는 체육관은 낡았다. 한 시즌은 아예 쓰지도 못한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것을 보장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다. 반대로 수원시는 한국전력이 원하는 클럽하우스 건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식선에서 한국전력이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는 뻔하다. 지금 이전 요구는 상식이 통하는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 그냥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남의 것을 뺏지 말고 축복받는 창단을 하라

우리의 이득을 챙기자는 욕심만 앞세우다보니 연고지 이전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팀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의 고민은 빠져 있다. V리그의 수준에 맞는 경기장 시설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먹고 자고 훈련하는 환경이다. 무조건 오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방식은 곤란하다. 정부정책에 따라 본사는 옮겨갔지만 스포츠 팀이 연고지를 정하는 것은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업은 자신들이 하고픈 곳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김천의 도로공사를 제외하고 12개 구단이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를 연고로 하는 V리그의 좁은 시장은 문제다. 도시연고를 택하면서 생긴 문제다.

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V리그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V리그는 시키지 않아도 좁은 연고지의 한계를 알고 확장을 생각한다. 그 결정도 V리그 구성원들이 한다. 남이 나서서 강요할 것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연고지 이전 주장은 남의 부부관계에 제3자가 억지로 끼여든 꼴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